

# 여수시,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없앤다

숙박지도팀 신설… 식품위생과·농업정책과·관광과 업무 통합

‘숙박요금 사전예고제’ 민박·관광호스텔업까지 확대 시행 예정

여수시는 한해 13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고품격 숙박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체 숙박업소를 통합관리 할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위생과에 ‘숙박지도팀’을 신설하고 숙박업, 민박, 관광호스텔업 등 전체 숙박업소를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일반 숙박업은 식품위생

과, 농어촌 지역 민박은 농업정책과, 관광지 주변 관광 숙박업은 관광과에서 각각 영업신고·사업승인 등 업무를 맡아왔다. 이 때문에 관광수출 터무니 없는 숙박 요금을 책정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져도 관리 부서가 달라 대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신설된 숙박지도팀은 앞으로 전체 숙박업소

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징수 등의 지도·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위생서비스·친절 교육을 펼치게 된다.

특히 현재 일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숙박요금 사전예고제’를 민박과 관광호스텔업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4일 ‘식품·공중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를 열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요금 사전예고제가 민박과 관광호스텔업에도 적용되면 비가지요금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객들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에는 6월 말 기준 일반 숙박업소 403곳, 민박 483곳, 관광숙박업소 101곳 등 총 987곳의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 장흥군,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 운영 ‘인기’

으로 집합교육에 참여율이 저조한 남부권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열린다.

특히, 남편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야간시간에 운영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통하여 재인식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최신자 센터장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 부부간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며,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여수시가 융천택지개발 지구에 건립될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설계공모 응모작에 대한 심사위원

회를 열고 건축사무소 가운데 한 건축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뽑았다.

당선작은 건축 전문가, 공무원 등 7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접

한 이순신도서관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평을 받았다. 또 공간·배치 계획,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앞서 시가 지난달 실시한 공모에는 9개 기관에서 공동 또는 단독

획층, 놀이체험 공간 제공, 종합 보육정보 제공, 대체 보육교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400㎡로 총 사업비 40여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 센터 건립공사의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4일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한 건축사사무소 공동작

‘이순신도서관과 연계성 높고, 공간·배치 뛰어나’ 평가

으로 5개 작품을 제출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의 컨트롤티워 역할을 하게 될 기관이다. 학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여수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진도군, 청소년 위한 연극 ‘빛꽃엔딩’ 공연

내일부터 14일까지 오후 2시 30분, 총 3회…무료공연

진도군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도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 ‘빛꽃엔딩’이 무료로 3회 공연된다.

연극 ‘빛꽃엔딩’은 흥대와 대학로, 인데밴드와 연극공연팀이 협력한 뮤직 드라마 형태의 새로운 공연으로 신선한 감동과 웃음을 주는 로맨틱 코미디 형태를 띠고 있다.

3일동안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연극 공연은 진도신문이 주최하고 진도예총이 주관하며,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 농업회사 자연과 들녘이 각각 후원해 열린다.

진도=조상용 기자

공연은 새로운 예술 장르를 경험하지 못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자극과 상상력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연극 관람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심미적 감성을 길러 균형 있는 교육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내 중·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관람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도 선물로 제공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 무안군, 민·관·군 가뭄 합동대책 결실

국방부 수방사 공병단 시추팀, 4공 시추 2공 성공

무안군은 최근 지속된 가뭄에 심각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국방부 수방사 공병단 시추대대의 지원을 받아 관정을 개발 중에 있다.

수방사 시추대대는 1차로 지난달 22일과 23일 신동관 소령을 비롯한 장병 6명이 해제면 장성마을 등 가동우심지역 10개소를, 2차로 28과 29일에는 운남면과 청계면 6개소에 대한 수매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소에서 관정개발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지난달 27일 장성마을을 시작으로 관정개발 시추에 들어갔다.

일상활 상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시추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휴무도 반납한 채 시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차와 3차 시추공에서는 염도가 높아 실패지만, 2차와 4차 시추공에서 각각 100여 톤과 200여 톤의 지하수가 솟구치는 성과를 보여 농민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대민지원에 참여한 장병들은 “휴일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했고 솟아나는 지하수를 보며 기뻐하는 농민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